

태극전사들이 젊은 피와 베테랑의 절묘한 조화를 앞 세워 9년 전 0-5 패배의 쓴 맛을 안겨줬던 '오렌지 군단' 사상에 나선다.

필 베어백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토탈사커'의 원조인 네덜란드를 상대로 친선전을 펼친다.



이천수

조재진

염기훈



9년전 '0-5 악몽' 우리가 씻겠다

이번 대결은 1998년 프랑스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네덜란드에 0-5로 패했던 아픈 기억을 태극전사들이 9년 만에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대표팀의 핵심전력으로 손꼽혀온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영표(토트넘), 설기현(레딩)이 한꺼번에 부상으로 전력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태극전사들이 어떤 경기력을 선보일지도 관심거리다.

다만 이번에 소집된 22명의 태극전사 중에서 유일하게 9년 전 패배의 혼장을 지었던 이동국(미들즈브리)은 베어백 감독의 '아시안컵 윤이' 정책에 따라 출전하지

베어백호 오늘 오후 8시 네덜란드와 평가전

조재진 원톱, 염기훈·이천수 '좌우 날개'로

않을 것으로 보여 아쉽다.

하지만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네덜란드 축구의 정수를 배웠던 이천수(울산), 김남일, 송종국(이상 수원) 등 월드컵을 두 번이나 경험한 베테랑들과 '젊은 피' 염기훈(전북)과 이근호(대구) 등이 9년 전 선배들의 치욕을 되갚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베어백 감독은 네덜란드의 빠른 공수전

환과 화려한 공격력에 맞서기 위해 최전방에 조재진(시미즈)을 원톱으로 내세우고 밭 빠른 염기훈과 이천수를 좌우 날개로 배치하는 4-3-3전술을 내세울 전망이다. 생애 첫 성인대표팀에 발탁된 이근호는 최근 뛰어난 골감각을 자랑하고 있지만 큰 무대 경험이 적어 교체멤버로 쓸 공산이 크다.

박지성이 빠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는

K-리그 선수들이 꼽은 최고의 테크니션 김두현(성남)이 포진한다.

김두현의 뒤를 받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경험 많은 김남일(수원)과 함께 김정우(나고야)나 이호(제니트) 중 컨디션이 좋은 1명을 면서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포백(4-back)은 이영표가 부상으로 빠진 왼쪽 윙백 자리에 그동안 베어백호에서 중앙 공격수로 나선 김동진(제니트)이 원래 자신의 포지션을 찾아가고, 송종국이 오른쪽 윙백을 맡게 된다. 또 중앙 수비는 김진규(성남)과 김상식(성남)이, 골키퍼는 이운재(수원)가 나설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두 손 들고만 위성미

LPGA 긴 트리뷰트 1R 16번홀까지 14오버파 부진

손목부상 이유 기권...출전금지 규정 피하기 의혹도

위성미(18·나이키골프)가 녀달 만에 필드에 복귀했지만 과5홀에서 10타를 치는 등 형편없는 스코어를 적어낸 끝에 기권하고 말았다.

위성미는 1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마운트 플레전트의 리버티운골프장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긴 트리뷰트 1라운드에서 16번홀까지 14오버파를 친 뒤 손목 부상 악화를 이유로 경기를 포기했다.

16번홀까지 버드는 단 1개 밖에 잡아내지 못한 위성미는 3번홀(파5)에서 이른바 '양파인' 10타를 치는가 하면 트리플보기와 더블보기, 보기를 쏟아냈다.

10번홀에서 티오프한 위성미는 7번홀(파4)을 보기로 마무리한 뒤 경기위원에게 "다친 손목이 아파 더 이상 경기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기권을 통보했다.

위성미의 기권에 대해 '투어카드가 없는 LPGA 투어 회의원은 18홀 스코어가 88타 이상이면 해당 시즌 투어 대회 출전을 금지 한다'는 규정을 피해가려는 '꼼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은 2개홀에서 2타를 더 잃었다면 위성미는 규정에 걸려 올해 LPGA 투어 대회 출전길이 막힐 뻔 했기 때문이다.

엉망인 스코어 카드 뿐 아니라 규정 위반 시비에도 휩싸여 아래저래 힘겨운 하루였다.

규정 위반 시비는 14번홀(파3)에서 티샷이 왼쪽 숲으로 날아가면서 촉발됐다. 가까스로 볼을 찾았지만 위성미는 다시 티잉그라운드로 돌아가 세번째샷을 쳤다.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면 1벌타를 받고 두 클럽 이내 드롭을 하거나 원래 쳤던 지점에서 다시 치는 방법 가운데 후자를 선택한 것.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 위병숙(46)씨가 조언을 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캐디가 아닌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조언을 받으면 2벌타를 받는다.

경기위원회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없어 벌타는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아버지가 너무 가까이 서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위성미가 1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리버티운 골프장에서 열린 LPGA 투어 긴 트리뷰트 1라운드에서 티오프한 뒤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상체가 물에 떠서 좋아요"

박태환 전신수영복 착용 소감

"상체는 확실히 뜨는데..."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전용 전신수영복 제작을 위해 시범 착용을 허용하고 있다.

박태환은 1일 오후 잠실학생수영장에서 진행된 훈련에서 후원사인 수영용품 전문 브랜드 '스피도'에서 제작한 전신수영복을 입고 30여분간 테스트를 했다.

4월 초 신체를 174kg까지 부위로 나눠 정밀측정해 지난달 중순 1차 제작된 수영복 4벌을 제공받은 박태환은 다시 보완을 거쳐 지난 달 28일 2차 제작된 수영복 4벌을 받았다.

이 4벌 가운데 이날 시범 착용한 건 3번 째. 첫번째와 두번째 수영복은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이미 시험을 했다.

전신수영복은 몸에 딱 맞게 제작돼 입는 데만 10여분이 소요됐다. 수년 전 처음 개발됐을 때의 전신수영복은 팔목까지 완전히 덮었기 때문에 주위의 도움을 받고도 착용에 30분이 넘게 걸렸지만 요즘 제작되는 건 민소매가 대부분이어서 그나마 나아진 것.

전신수영복을 입고 50m 수영장을 왕복할 때마다 불편한 사항을 지적했으며, 스피도 관계자는 박태환의 말을 녹음까지 해가며 꼼꼼히 체크했다.

박태환은 "상체가 물에 떠서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피도에서 만든 수영복은 부력을 극대화시킨 '페스트스킨(Fast Skin, FS) 프로'라는 특수 원단으로 만들었다.



'마린보이' 박태환은 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수영장에서 후원사 '스피도' 측이 특별 제작한 전신수영복을 시범 착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홍만 K-1 미국대회 출전 못할듯



'테크노 골리앗' 최홍만(26·사진)이 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릴 'K-1 디아너마이트 USA' 대회에 끝내 출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종합격투기 사이트 '더파이트네트워크'는 1일 K-1 주최사인 FEG가 모두 9경기를 확정하면서 최홍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체육위원회(CSAC)로부터 출전 허가를 받지 못해 김민수(32)를 대신 출전시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최홍만은 이번 대회 최고 이벤트 경기로 프로레슬링 스타 출신 브루 레스너(30·미국)와 대결할 예정이었으나 베디컬 테스트 결과 머리 속에서 종양이 발견돼 결국 CSAC로부터 출전 통보를 듣지 못했다.

한편 최홍만은 1일 "마지막까지 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홍만은 이날 "CSAC의 결정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나 역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지만 문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사실이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출전하고 싶으며 끝까지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美 언론 "서재웅 퇴출 가능성"

부진에 빠진 서재웅(30·탬파베이 데블레이스·사진)의 '퇴출' 가능성에 현지 언론으로부터 제기됐다.

미국 플로리다주 지역 신문인 세인트피터즈버그 타임스는 1일(한국시간) 탬파베이의 선발진 개편 계획을 언급하면서 '마이너리그 옵션을 모두 사용한 서재웅이 마이너로 곧바로 내려갈 수 없어 웨이버 공시되거나 방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방출이 확정되면 서재웅은 자유계약선수(FA)가 되고 영입 구단은 서재웅의 연봉 120만달러를 떠안아야 한다. 서재웅은 올해 10차례 선발 등판에서 3승4패, 평균자책점 8.10으로 부진했다. 또 불펜진으로 강등돼 지난달 30일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전에서 처음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20닝 동안 흠런 1개 등 5안타로 2실점하는 등 불안함을 노출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바둑·룰러스케이팅·정구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아시안게임 참가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바둑과 룰러스케이팅, 정구가 마침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는 지난 달 28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제50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바둑과 룰러스케이팅, 정구를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블래터 FIFA 회장 3선



제프 블래터 (71·스위스·사진)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경쟁자 없이 3선에 성공했다.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FIFA 총회에서 20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지지를 받아 2011년까지 5년 간 세 번째 임기를 채우게 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